

# 순천만정원 4년 연속 관람객 500만명 돌파

전국 최고 관광지 자리매김  
365일 볼거리 풍성하고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인기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500만번째 관람객이 입장했다. 가을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들. <순천시 제공>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4년 연속 관람객 500만명을 넘어섬에 전국 최고의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집계 결과 순천만 국가정원에 500만번째 관람객이 입장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5년 4월 개장한 이후 2015년 533만명, 2016년 543만명, 2017년 612만 명 올해 11월 중순 500만명이 입장하면서 4년 연속 관람객 500만을 넘는 기록을 달성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365일 볼거리를 넘어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정원 문화 콘텐츠를 운영했다.

봄에는 각양각색의 꽃과 어우러진 퍼레이드와 감성 포크콘서트, 여름에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체험장, 바다분수, 에어슬라이드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 물총싸움과 치맥파티로 구성된 DJ힙합&치맥 페스티벌과 워터라이팅쇼는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주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특히 지난 9-10월 진행된 공포체험 '귀+신과함께'는 정원갈대축제가 진행될 38일 내내 선착순 250명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관람 위주의 정원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정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원에서 운영되는 동물교감체험프로그램, 시민과 함께 가꾸는 숲 정원 조성을 위해 '아이나무 심기'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정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500만명 관람객을 넘긴 순천만국가정원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겨울 펼쳐질 별빛축제로 관람객에게 또 다른 추억과 기쁨을 선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숨은 자원 찾아라"... 오늘 '재활용 촉진경진대회'

순천시가 21일 국가정원스포츠펠드 주차장 일원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위한 '재활용 촉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고철, 현우, 폐지, 플라스틱 등 숨은 자원과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등을 수집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순천시 새마을회 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이·동장,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 실적을 평가하는 자리로 매년 200톤 이상의 숨은 자원을 찾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순천시 새마을회 관계자와 이·동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읍면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수집한 재활용품을 매각해 수익금은 연말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경로잔치,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무엇보다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줄이기와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



순천시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촉진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국가정원스포츠펠드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지난해 대회 모습. <순천시 제공>

##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 새 감시단 발족

시민 30여명 참여 29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순천경찰서와 순천 YMCA 등 전남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가 새롭고 감시단을 발족한다.

20일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 자치학교를 통해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을 공개 모집

한 결과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과 오후 각각 2~3명씩 배정해 오는 29일부터 순천시의회에서 열리는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30여 명의 자발적 시민으로 구성된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가 목적대로 잘 진행되는지,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해 주권자인 시민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지, 피감기관들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지,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 노력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행·의정모니터연대 관계자는 "인터넷 생중계로는 의원들의 결석, 지각 또는 태도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없으며 현

장 감사 중심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인터넷 생중계가 되지 않음을 감안해 시민 모니터단이 직접 찾아다니며 감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개별평가는 정량평가(총 80점으로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사전분석, 질의, 피감기관 전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7개 항목)와 정성평가(총 20점으로 모니터단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배점)로 총 100점 만점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순천시, 분쟁 조정·해결 통해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 나서

순천시는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을 독려하고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및 자율해결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관내 아파트단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인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주민 자율시스템 역할을 한다.

시는 우선 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층

간소음 분쟁 해결, 사후관리방법, 소송 판결 사례 및 법적 해석 등을 컨설팅한다

는 계획이다. 시는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97개 아파트 단지 중 50개소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컨설팅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따뜻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 재난 대응능력 향상 '양수기 설치·가동 경진대회' 눈길



순천시가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이색적인 직원 소통·화합행사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설국은 지난 17일 소속 직원 17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직원 소통·화합 행사의 일환으로 부서별 5인조 양수기 설치·가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5인 1조로 구성된 각 부서 직원들은 실제상황을 가정한 참고에 보관된 양수기 세트를 이동한 후 조립, 배수까지 과정을 처리하며 우승팀을 가렸다.

이날 행사는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도로

침수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외에도 소속부서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보물찾기, 부서별 축구 게임, 윷놀이 등도 진행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자로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8월 도시건설국 6개 과·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재난대응 배수작전 기동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순천시, 전남도 주관 '산림행정종합평가' 대상

순천시는 전남도 주관 '2018년 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전 시·군의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생태분야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의 산림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실적을 살폈다.

시는 산림자원육성, 최첨단기술 노력,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증진, 임도, 산림병해충 방제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시는 포상금과 함께 2019년 주요사업물량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아 산림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강진 순천시 산림소득과장은 "2015년 산림행정평가 대상에 이어 민선 7기 첫해인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등 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